한·중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비교연구
- 조선시대 상류주택과 중국의 북경 사합원을 대상으로 -

홍철웅* · 황보철* · 최만봉**
*전북대학교 대학원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시대 한 민족의 주거건축은 그 시대 그 민족의 생활양식과 관습,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자연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주거의 표현방법 또한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은 역사 이래로 많은 문자, 종교, 사상, 정치, 사회제도 등에 이르는 인문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리, 지형, 기후 등의 자연적 환경에서는 차이점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주거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양인의 사유체계와 세계관으로 된 동양철학이 동양인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점에서 출발하여 한·중 양국의 전통주거 공간에 대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양사상의 공간질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시대적 범위

한·중 역사에서 동일하게 15-19세기에 속하는 한국의 조선시대(기원1392-1897)와 중국의 명·청시대(기원1368-1911)로 국한하여 비교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삼았다.

(2)내용적 범위

한국의 대상가옥은 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시대 상류주택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들 주택은 비록 통계학적인 가치는 가지지 못하지만 건립시기와 계층, 건축연혁이 비교적 잘 밝혀져 있기에 상류주택의 특성을 밝히는데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중국의 대상가옥은 전형적 사대부 주거인 북경 사합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사합원은 놀랍게도 이천년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는 주거형식으로서 중국인의 주거관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주거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살펴봐야 하는 대상이다.

2) 연구방법

연구의 성격은 역사적 주거 공간구성의 관찰에 관한 기술의 형식이 되며 그 과정은 양국 가장 대표적 주거형식을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된 내용의 종합화의 삼단계가 된다. 자료수집에서 본 논문은 주로 양국 전통주거에 대한 정확한 현지답사와 현존하는 광범위한 전통건축의 해석에 대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되었다.

양국의 주거문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각 나라의 특징적 주거형식을 추출한 후 그 주거형식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지니는 공간구성의 특징, 외형상의 특징, 공간의 사용방식,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건축적인 내용 속에 담긴 사상적·지리적·풍토적 요인이 그러한 주거형식을 형성하는데 작용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Ⅱ. 결론

우리나라 상류주택과 중국의 전형적인 사대부 주거인 북경 사합원을 대상으로 양국의 주거문화와 공간구성에 관하여 비교연구 하였던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시적면에서 보면 양국의 전통주거 모두가 동양사상의 문화권에서 주거문화를 형성, 발전하여 동일한

공간구성원리로 건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주거문화의 고유성은 규모와 지역의 상황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상위체계에서 결정된 하나의 공간구조를 일관하게 적용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고 한국 주거문화의 고유성은 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지역적 보편성을 공유하면서도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지형 및 가족구성 등 제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그 공간구조를 취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2. 공간구성요소에서 보면 한·중 주거 모두가 계통적으로 같은 주거문화권에 속하는 중정형 주거형식을 취하지만 중국의 ㅁ자형 마당은 건물과 일체화되여 주택영역을 ㅁ자형으로 규칙적으로 한정하며 건물구성은 특정된 일명이암의 형태를 가지지만 한국의 마당, 건물, 담장은 자연환경과 주거기능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3. 공간요소의 시각구조에서 보면 한국의 상류주택의 내, 외부공간의 시각구조는 우연적이기보다는 계획적, 개방적, 연속적, 유동적이며 중국의 사합원 주거는 시각적 개방성과 연속성보다는 이와 반대인 시각적 차단성과 변화 감을 강조하고 있다.

4. 풍수사상에서 보면 사합원은 건축시설의 기본배치양식에서 풍수설의 이상적인 지리적 형상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상류주택은 주거의 입지선택을 중요시하여 자연과 결합된 취락풍수가 발달되었다.

5. 공간축의 유교적 위계질서에서 보면 사합원은 건축자체의 수평축을 따라 좌우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축에 따라 위계성이 증가되며 그 정점이 가장 중요한 위계적 공간으로 된다. 상류주택은 그 주거를 포함하고 있는 마을과 결합되어 동족마을을 형성하며 마을구성에서 주축의 위계에 따라 단위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수직적 공간의 건축처리에서 양국모두가 건물의 높이, 지붕, 볼륨의 크기 등에서 위계적 질서를 나타내고 있다.

6. 가장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가부장제 사회제도를 바탕으로 한 한·중 양국은 가장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즉 한국의 사랑채 공간과 중국의 정방의 중심 당은(혹은 청방) 개방적인 손님접객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7. 조상숭배·장유유서에서 보면 한국에서 조상위패는 사당인 독립공간에 중국은 주인의 거처공간인 정방의 중심 당에 위치하고 한국에서 부자 및 고부관계는 장유유서에 따라 동내에서 방과 방으로 영역분할이 이루어졌지만 중국에서는 부자 및 고부간에 장유유서에 따라 가정을 단위로 동과 동의 영역분할이 이루어졌다.

8. 남녀유별 사상에서 보면 한국에서 부부는 남녀유별에 의하여 동(사랑채공간)과 동(안채공간)의 영역분할이 이루어졌고 중국에서는 부부가 남녀유별에 의하여 동내에서 각자 영역을 간으로 분리했다. 남녀하인공간에 있어서 중국은 남녀하인을 동과 동으로 분리하고 있으나 한국은 동내에서 방과 방으로 분리한다.

참고문헌

1. 金光彦(1966) 韓國의 住居民俗誌, 民音社.
2. 李夢山(1991) 韓國風水思想-시대별 풍수사상의 특성, 명보문화사.
3. 李智皓(1962) 韓國의 風土와 生活樣式, 서울博友社.
4. 손세관(2001) 넓게 본 중국의 주택(上).
5. 손세관(2001) 넓게 본 중국의 주택(下).
6. 朱南哲(1980)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7. 鄭寅國(1974)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8. 中國建築史編輯委員會저·梁金石역(1979) 中國建築概說, 泰林文化社.
9. 中國建築史編寫組(1979) 中國建築史,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0. 黃永融(1999) 風水都市:歷史都市의 空間構成, 學藝出版社.
11. Ebrey,Patricia Buckley저·배순희 역(2000),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 三知院.
12. 김진균(1997)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시각구조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6).
13. 김성우·이원석(2000) 중국동부 합원 및 천정식 민가와 한국 ㅁ자형 민가의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8).
14. 김미나·조성기(2002) 한·중·일 경계의식에 다른 주거공간의 경계구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
15. 도용호(1998) 유학적 생활규범에 의한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
16. 손세관(1994) 중정형 도시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문화적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1).
17. 주남철(1978) 朝鮮時代 住宅建築의 空間特性論,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80).
18. 趙重根, 金興坤(1994) 韓國宗家建築空間의 連續性 및 位階性,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9).
19. 한필원(1997) 중국 북경 四合院의 공간구성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1).
20. 김재식(1997) 조계산 선암사의 택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21. 金蘭我(2000) 한국 전통상류주택 안채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大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박선희(1991) 朝鮮時代 班家의 住生活과 空間使用에 대한 硏究, 연세대학교박사논문.